

A Critical Review on the Religious Education and the Pastoral Care i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inkyun Im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itive results and tasks th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has achieved through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areas and pastoral care.

[Contents] First, in the curricular area,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ducates the value of a culture of human respect based on the Catholic spirit through four basic liberal arts courses and the ‘Catholic Metaversity’. But a new chaplain’s office is needed to oversee the holistic education and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In the extra-curricular area, various opportunities for volunteer work are provided to help students respect Catholic humanism. But it is necessary to add programs related to Christian unity and interreligious dialogue. Lastly, in relation to pastoral care, the chaplain’s office not only helps the community mature in faith, but also strives to testify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through life. There is a need for the community to be open to non-Catholic and foreign members.

[Conclusions] First, helping students discover the value of human respect through the curricular area and putting that value into practice through the extra-curricular area and the pastoral care is the most ideal missionary method in a ‘secularized’ society. Second, it must be shown that academic exchange between science and theology is possible in a ‘highly industrial’ society. Lastly, the heritage of the Catholic faith can be further enriched through close exchange with neighboring religions in a ‘multi-religious’ society.

[Keyword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ligious education, Pastoral care, Respect for humanity, Practice of love, Interreligious dialogu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search Fund, 2023.

* **Corresponding to** Minkyun Im (Professor, Catholic Colleg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 imminkyun@catholic.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육과 학교사목에 대한 비평적 고찰

임민균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세속화 사회, 고도 산업사회, 그리고 다종교 사회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톨릭대학교가 교과 및 비교과 영역, 그리고 학교사목을 통해 성취한 긍정적인 결실과 과제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먼저 교과 영역에서 가톨릭대학교는 기초 교양 필수 과정과 ‘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을 통해 가톨릭 정신에 기초한 인간 존중 문화의 가치를 교육하고 있지만, 전인 교육과 복음 선포를 종합적으로 관할할 교목처가 요구된다. 비교과 영역과 관련해서는 윤리적 리더 육성 프로그램(ELP)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가톨릭 인본주의를 존중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비교과 과정에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일치와 종교 간 대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사목과 관련하여 교목실은 공동체의 신앙 성숙을 도울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증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목 공동체가 복음 선포를 위해 하느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비(非)가톨릭 및 외국인 구성원들에게도 개방된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기초 교양 필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 신앙에 바탕을 둔 인간 존중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봉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 및 학교사목을 통해 깨달은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세속화’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선교 방법이다. 둘째, 지속적인 과학 기술과 신학 및 철학 간의 학문적 교류를 독려함으로써 ‘고도 산업’사회에서 과학 기술이 하느님 섭리를 새롭게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신학은 과학 기술이 나아가 할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종교’ 사회에서 가톨릭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이웃 종교들과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가톨릭 신앙 유산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주제어]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육, 학교사목, 인간 존중, 사랑 실천, 종교 간 대화

I. 서론

교황청 문화교육부(Dicastery for Culture and Education)는 2023년 11월 23~24일 양일간 “다면체적 비전을 향하여(Towards a Polyhedric Vision)”라는 제목으로 가톨릭계 대학교¹⁾의 사목 성과와 관련한 콘퍼런스를 바티칸에서 개최하였다. 필자도 발표자로 참석한 이 자리에서 다뤄진 주요 주제 중의 하나가 ‘청년 계층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 문제였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톨릭계 대학교가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들려주는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이 문화를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식별하여 청년들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가톨릭계 대학교가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고유한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들을 포용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교육 과정에 녹여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Dicastery for Culture and Education, 2023: <https://zrr.kr/G5V6>).

요한 바오로 2세도 가톨릭계 대학교의 존재 목적을 “더 높은 문화를 추진하는 모든 연구 분야 안에서 그리스도교 정신이 이른바 공적이며 견고하고 보편적인 현존을 성취하고 또한 학교의 학생이 실제로 출중한 지식을 쌓아 사회의 중대한 책임을 자발적으로 떠맡고 세상에 신앙을 증거하려는 만반의 자세를 갖추도록 해주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 목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리스도교 문화가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지 않는 서구 유럽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가톨릭계 대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구원의 복음 소식이 단지 개인 신앙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학문 연구와 사회봉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어떻게 문화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Pope John Paul II, 1990: n.9-10). 특히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청년 계층이 종교에 대한 무용성을 주장하고, 이를 넘어서 무관심의 단계에 까지 이르는 문화적 흐름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원인을 세속화와 고도 산업화, 그리고 다종교 사회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대한민국 가톨릭계 대학교가 직면한 사목적 도전 과제들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톨릭대학교(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²⁾는 교목실과 학부대학을 중심으로 교과 및 비교과 영역 및 학교사목(學校司牧)³⁾을

- 1) 본 논문에서는 교황청 문헌을 비롯한 교회 문헌에 쓰인 ‘가톨릭 대학교’라는 용어를 ‘가톨릭대학교(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와 구분하기 위하여 ‘가톨릭계 대학교’라 쓰기로 한다.
- 2) ‘가톨릭대학교’의 영문 표기인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를 이하에서는 ‘CUK’로 줄여 표기하기로 한다.
- 3) ‘학교사목(學校司牧)’은 ‘교목(校牧)’이라 줄여 부르기도 하는 용어로서, 특정 종교가 설립한 사립 학교가 추구하는 종교적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신앙 및 인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천주교 입장에서 볼 때, 학교사목은 세례받은 신자들의 신앙 성숙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전체 학교 구성원들의 인격 성장과 공동체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통해 가톨릭 정신을 기초로 한 ‘진리·사랑·봉사’라는 교육이념이 추구하는 인간학적 가치는 물론 더 나아가 종교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가치를 교육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가톨릭대학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종교교육과 학교사목을 통해 청년 계층 문화의 복음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결실을 얻고 있는지 분석함과 동시에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비평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II.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톨릭대학교가 직면한 과제

1.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종교 현황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종교인구 비율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기타 종교 2%, 그리고 ‘종교 없음’ 51%의 분포를 보였다(Hankook Research, 2022.12.14.). 천주교의 경우 과거 1980년대 7.6%, 90년대 4.4%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로는 1~2%대로 급감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거의 정체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분석이다(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⁴⁾, 2023: 78-79). 특히 20대 청년의 경우 개신교 14%, 불교 8%, 천주교 7%, 기타 종교 2%, 그리고 ‘종교 없음’ 69%로 조사되었다(Hankook Research, 2022.12.14.). 이 통계 수치를 통해 천주교를 포함한 종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청년들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은 가톨릭 정신의 함양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가톨릭대학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편, 가톨릭대학교 2022년 성심교정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종교 설문에서는 개신교 13.7%, 불교 2.6%, 천주교 12.3%, ‘종교 없음’ 69.4%, 기타 1.9%로 조사되었다(Cha, 2023: 6).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서의 천주교 복음화율이 대한민국 20대 평균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문제에서 결코 예외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이지, 거의 7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종교에 반감 또는 무관심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영문 표기인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를 이하에서는 ‘CBCK’로 줄여 표기하기로 한다.

2.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톨릭대학교가 당면한 사목적 도전 과제

1) 세속화(世俗化) 사회

모든 가치를 효용성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 소외와 도구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인간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 가르침에 기초한 생명, 사랑, 나눔 등으로 대표되는 형이상학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세속화 현상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쟁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가톨릭대학교가 사회적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인간의 신비를 완전히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교육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덧붙여 오늘날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보편화된 개인주의 생활양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개인 삶의 질 향상에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어 보이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급속도로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었다(Park, 2001: 75).

2022년 평균 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에서 이제 인구 절벽 현상은 대학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대학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CBCK, 2023: 78). 그리하여 대학 평가에 있어서 가톨릭 정신에 기초한 인성 교육이나 봉사와 같은 수치화하기 힘든 ‘과정’이 중시되는 교육보다는 대학 평가 순위나 교수 연구 실적, 그리고 학생 취업률 등 ‘결과’와 ‘외부적 성과’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종교는 세속사회와 유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가톨릭대학교는 자신의 종교교육과 학교사목을 통해 현대사회가 직면한 인간 소외 및 도구화, 인구 위기를 포함한 생명 경시, 생태 위기,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신앙의 빛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Committee on Education in CBCK, 2021: n.4.9).

2) 고도 산업사회

오늘날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는 우리나라에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지만, 이 발전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에 대한 성찰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성찰은 새로운 과학 기술이 인간 개인은 물론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나침반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가톨릭대학교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윤리적·종교적 차원에서 성찰함으로써, 이 과학 기술이 근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Pope John Paul II, 1990: n.7).

고도로 산업화가 진행된 대한민국에서 대중의 과학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도가 상승한 결과, 종교보다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신뢰도 또한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신앙’과

‘이성’이 양립할 수 없는 대립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중국에는 종교의 도움 없이도 인간 이성이 주도하는 자연과학의 힘으로 이상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인간이 이룬 과학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자연 현상 안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가톨릭대학교가 신앙적 관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신의 존재 가능성을 외면하는 인간의 과학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오늘날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생태학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Committee on Education in CBCK, 2021: n.4.4).

3) 다종교 사회

인류 문명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토대로서 종교는 인간이 삶에 대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변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더욱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종교 간의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KCRP(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와 ‘종교지도자협의회’ 등의 기구들을 통하여 국가 공동체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종교 간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종교 문화와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에 기초한 ‘절대적 진리’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거나, 천주교 입장에서 그리스도 신앙이 단지 수많은 종교 진리 중 하나로 전락하여 개인의 판단에 따라 취사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종교계 메시지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속도로 뿌리내리고 있는 사이비 종교들로 인하여 종교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톨릭대학교는 종교교육과 학교사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종교 사회에서 이웃 종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가톨릭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과제가 있다(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13: n.7-12).

III.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육과 학교사목의 성과 및 비평

1. 교과 영역

1) 기본 모델: 기초 교양 필수 과정을 통한 가톨릭 정신의 함양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은 ‘인간 존중의 대학’이라는 학교 건학이념이 종교의 유무와 상관 없이 ‘진리, 사랑, 봉사’라는 구체적인 실체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가톨릭 가치와 특성을 담은 4개의 기초 교양 필수 과목들, 즉 ‘인간학1’, ‘인간학2’, ‘그리스도교 사상과 문화’, 그리고 ‘사

랑나누기(봉사활동)’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을 존중하는 전문인(을) 양성”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균형 잡힌 전문인(을) 양성”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인류사회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열린 세계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CUK: <https://zrr.kr/LNx3>).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헌장 *Ex Corde Ecclesiae*는 보편 교회가 ‘인간 중심적 문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톨릭계 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히 계시한 인간의 신비를 연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Pope John Paul II, 1990: n.3).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현재 가톨릭대학교가 운영 중인 ‘인간학’ 교과목은 현대사회가 발생시키는 인간 존엄성과 자유 등과 같은 삶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현재 문화들의 긍정적 요소들은 존중하면서도 그리스도 신앙에 상응하지 않는 요소들에 대한 정당한 비평과 올바른 해결책을 성찰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 신앙이 단지 과거의 신앙 전통을 이어가는 데만 의미를 두지 않고, 현시대에서 새로운 인간 존중 문화를 창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Pope John Paul II, 1990: n.33; Catholic College & Institute of Anthropology, 2017: 5-8). 또한 인간 존중의 근본적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가르침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인간학’은 가톨릭 신앙의 가치와 전통을 익히고 이를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또 다른 기초 교양 필수 과목인 ‘그리스도교 사상과 문화’를 위한 준비 과정의 역할도 수행한다(Committee on Education in CBCK, 2021: n.4.6).

‘그리스도교 사상과 문화’ 교과목은 다종교 사회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웃 종교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종교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점과 동시에 한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간학’에서 다루었던 인간답게 사는 것의 의미와 관련하여 그리스도 신앙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인간 존중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문화를 ‘복음’에서 찾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Pope John Paul II, 1990: n.4-6; Institute of Anthropology, 2009: 3-7).

가톨릭계 대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은 “그리스도교 인간관을 기반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신앙과 삶을 통합”해야 한다는 교회 가르침에 따라 가톨릭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메시지를 토대로 인간 존중의 정신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가톨릭대학교는 1996년 봉사학점제를 시작한 후에 2012년에는 봉사 교과목, ‘사랑나누기(과거 ‘베(품)·나(눔)·생(명)’)’를 의무 교과목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단지 이론적 영역으로 한정될 수 없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발견될 수 있음을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Committee on Education in CBCK, 2021: n.4).

2) 발전 성과: ‘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 출범

개별 가톨릭계 대학교가 가진 학문적, 인적, 그리고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가톨릭

릭계 대학교들의 다양한 교육 과정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심화함은 물론 현대사회가 초래하는 여러 비인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인류 공동체의 선익에 공헌할 가능성이 발견된다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를 증진할 뿐 아니라 각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가톨릭 인본주의에 입각한 우수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공유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을 교황청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The Second Vatican Council, 1965: n.12; Pope John Paul II, 1990: n.35).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로 대한민국 12개의 가톨릭계 대학교⁵⁾가 4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가톨릭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공동선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명석한 판단력, 그리고 앎을 넘어 행동하는 실천력과 심미적 역량까지 두루 갖춘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우수한 교양 교과목들을 미래형 메타버시티(Metaversity)를 통해 상호 교류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이 2023년에 출범하였다(Catholic Metaversity, 2023: <https://zrr.kr/Mycb>). 특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대중화된 온라인 플랫폼의 강익은 학생들에게 현대사회에서 가톨릭 정신을 반영한 문화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조성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지를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게 하고, 날이 갈수록 수요가 늘어가는 직장인들을 위한 학위 과정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학기에는 총 17개 교과목⁶⁾이 개설되었고, 전체 가톨릭계 대학교 학생 수의 3.6%에 해당하는 1,409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2학기에는 총 33개로 교과목⁷⁾이 대폭 확대되었고, 전체 가톨릭계 대학교 학생 수의 9.7%에 해당하는 3,817명의 학생이 수강 등록을 마쳤다. 참여대학별 재학생 대비 수강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가톨릭대학교 81.9%, 가톨릭꽃동네대학교 65.5%, 목포가톨릭대학교 24.2%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대학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고, 특이하게도 종합대학 가운데 공유대학을 주도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의 참여도가 22.8%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공유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명확하게 상

- 5) 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에 참가하는 구성원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서강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등 총 12개가 있다.
- 6) 2023년 1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불안을 건디는 힘’, ‘스트레스와 적응’, ‘신화적 상상력과 게임 미디어’, ‘인간학1’, ‘키스톤디자인·인문창의’, ‘한국 힙합의 랩 탐구’, ‘고대 문명의 이해’, ‘근현대 소설로 읽는 한국 도시 100년사’, ‘시를 읽다, 소설을 읽다, 나를 읽다’, ‘잘 실패하는 법’, ‘참 삶의 길’, ‘인간 행동과 윤리적 사고’, ‘문학과 정신분석’, ‘웰빙과 웰다잉’, ‘초연결 사회와 5차 산업 혁명’, ‘교회미술’, ‘삶의 재발견’.
- 7) 2023년 2학기에 새로 개설된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TT로 읽는 철학’, ‘공동의 집 지구, 환경 보존하기’, ‘과학의 논쟁’, ‘인간학2’, ‘캐릭터 유니버스’, ‘휴머노이드 로봇’, ‘지적대화를 위한 인문 고전 산책’, ‘감성 인문학’, ‘과학 기술과 사회’, ‘영화 고전의 발견’, ‘공감과 소통’, ‘거꾸로, 다시 그리고 치유’, ‘문학예술의 심리학’, ‘법과 지식재산’, ‘사상의학의 이해’, ‘생활 속의 심리학’, ‘영성 수련’, ‘이슬람과 서양: 문명교류의 역사’, ‘종교와 세계 문화’, ‘현대사회의 이해’, ‘4차 산업 혁명과 예술’, ‘리더의 삶과 자기관리’, ‘음악과 인간 행동’.

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그 주된 이유가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에게 지리적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더욱 확대된 교양 교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학생들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3) 비평적 평가: 교목실과 학부대학의 통합 조직인 교목처 필요

가톨릭대학교가 ‘전인 교육’과 ‘복음 선포’라는 이중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교육 과정에 적용할 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가 있다면, 바로 전인 교육과 복음 선포 사이에는 ‘인간 존중의 토대를 구성하는 그리스도 신앙 진리’라는 공통 분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전인 교육과 복음 선포 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는 교육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학교사목을 담당하는 교목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Committee on Education in CBCK, 2021: n.1). 가톨릭대학교에서는 학교 인성 및 봉사 교육을 담당하는 학부대학이 교목실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목실은 가톨릭 신앙인을 위한 전례와 신앙 교육으로 대표되는 사목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교목실장은 교무위원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목실이 학교 인성 및 봉사 교육에 가톨릭 정신을 적절한 방법으로 녹여내기 위한 조언 및 제안을 할 기회가 매우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인간학’ 교과목을 학부대학이 45명 정원의 강의실 강의 분반들과는 별도로 300명 정원의 공유대학 분반을 개설하고 가톨릭대학교 학생들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결과, 강의실 강의에서만 가능한 교수와 학생 간에 형성된 인격적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가톨릭대학교 고유의 인성 교육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목실을 교목처로 승격하여 대학 교양교육은 물론 인성 및 봉사활동을 총괄적으로 운영한다면, 가톨릭 정신이라는 전체적 전망 아래에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유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인간 존중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그리스도 신앙의 관점으로도 자연스럽게 성찰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학생들이 넓게는 종교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거나, 좁게는 그들 문화의 의미를 가톨릭 신앙이 추구하는 구원 전망 안에서 발견하는 긍정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22: n.18-20).

가톨릭계 대학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의 자유를 통해 얻은 전문적 지식이 진리 자체인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보다 심화된 깨달음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이 신비에 대한 신앙의 증인이 되도록 가톨릭계 대학교가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계 대학교는 신학과 다른 학문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신앙과 이성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초월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있음을 모든 학교 구성원이 깨달을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

이다. 이와 더불어 신학의 도움으로 다른 학문은 자신의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The Second Vatican Council, 1965: n.10; Pope Francis, 2015: <https://zrr.kr/0ZOR>). 구체적으로 가톨릭대학교도 신학과 다른 학문 간의 대화와 지속적인 학제 간 협력을 위해 교내에 설립된 연구소인 김수환추기경연구소, 인간학연구소, 교회법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사목연구소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교목실이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교 건학이념인 ‘인간 존중’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조성된 ‘가톨릭대학교 강엘리사벳 학술연구기금’이 단지 신학이나 철학으로 대표되는 인문학 관련 연구에만 제공되지 않고, 신학과 다른 학문 간의 공동 연구를 위해서도 운영된다면, 전문적 지식의 함양이 신학적 성찰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비교과 영역

1) 기본 모델: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한 가톨릭 정신의 확산

가톨릭계 대학교는 자신이 인간 사회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따라서 구성원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교육 격차 해소, 생명 존중, 정의 실현 및 세계 평화 추구 등의 공익 실현을 위한 건설적인 문화를 창조할 소명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톨릭대학교는 삶의 공간을 협소한 강의실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윤리적·종교적 문제들의 원인은 물론 가톨릭 정신을 토대로 이상적인 해결책을 찾아 이를 직접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전인적 인간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하느님 사랑을 토대로 한 인간 존중이라는 가톨릭 교육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다(Committee on Education in CBCK, 2021: n.4.5; Pope John Paul II, 1990: n.32).

구체적으로 먼저 학부대학 주관으로 1997년 파푸아 뉴기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국제봉사단’ 활동이 있다. 성심·성의·성신 3개 교정에서 선발된 봉사단원들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까지 방문하여 교육 환경 개선 작업과 함께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교육 봉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면서도, “대학의 교육이념인 ‘진리·사랑·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의 세계화’를 실천”하는 직접적인 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낸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세계적인 봉사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얻고 있다(Catholic College of CUK: <https://zrr.kr/3Ttc>). 두 번째로 “가자! 가장 낮은 곳으로!”라는 모토로 학교 교육이념과 나눔의 정신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1995년 결성된 ‘카리타스봉사단’이 있다. 2023년 기준으로 100여 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기당 단체

봉사 2회 및 개인봉사 20시간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는 물론 자체적으로 의류 나눔 봉사, ‘천원의 아침밥’ 안내 봉사, 그리고 학교 주변 환경 정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Catholic College of CUK: <https://zrr.kr/vJQL>).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이 주최하는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에 학생들을 파견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의 격차가 있는 지역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봉사를 진행하고 있고, 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주최하는 해외 및 국내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월드프렌즈코리아 청년봉사단’은 물론 아시아 가톨릭계 대학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프란치스코 봉사캠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톨릭대학교 기초 교양 과정을 통해 이해한 진정한 인간다움의 의미를 성찰하고, 공동선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Catholic College of CUK: <https://zrr.kr/MyAT>).

2) 발전 성과: ‘윤리적 리더 육성 프로그램(ELP)’을 통한 봉사 인재 양성

ELP(Ethical Leaders rearing Program) 과정은 가톨릭대학교의 대표 교육 브랜드로서, 인간 존중 더 나아가 생명 존중의 정신을 토대로 한 윤리적 역량과 동시에 전문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수료를 위해서는 평점 평균 3.0 이상, ‘교과 영역’의 ‘인성 분야’에서 최소 11학점, ‘문제해결능력 분야’에서 최소 8학점, 총 19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비교과 영역’의 ‘인성 분야’에서 10점 이상,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분야’에서 20점 이상, 총 5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기초 교양 필수 교과목’은 물론 ‘국제봉사단’, ‘까리타스봉사단’ 등의 비교과 활동을 완료할 때 ELP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이 매년 이수 조건을 충족할 때 학년당 50명씩 선발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졸업 시 총장 명의의 ELP 수료증이 발급된다(Catholic College of CUK: <https://zrr.kr/A6JX>). 2023년 기준으로 ‘비교과 영역’의 ‘인성 분야’에는 109개, ‘문제해결 능력 분야’에는 373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현황을 종합하면, 2018년 135명, 2019년 167명, 2020년 336명, 2021년 454명, 그리고 2022년에는 436명이 ELP 과정을 마쳤고, 해가 갈수록 수료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대체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 비평적 평가: 그리스도인 일치와 종교 간 대화를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필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부터 모든 신입생이 입학과 동시에 ELP 과정에 자동적으로 가입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ELP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인간학’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담당 직원이 ELP 과정의 의미와 함께 이수할 때 받게 되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지만, 현재는 학부대학 홈페이지 안내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찾아보지 않으면 ELP 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ELP 과정을 구성하는 비교과 활동이 전반적으로 봉사활동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 또한 명확하

다.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이웃 종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간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가치들을 발견하고, 이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일치와 종교 간 대화와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ELP 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2년 3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를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일치’와 ‘종교 간 대화’ 관련 부서를 각각 ‘위원회(Consilium)’에서 ‘부(Dicasterium)’로 승격하였다(Pope Francis, 2022: n.142-152). 그리스도 신앙이 서구 유럽에서도 더 이상 주류 종교라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무신론자들과 종교에 무관심한 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톨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러 이유로 인하여 갈라진 형제들과의 일치를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치를 삶으로 증거할 필요성은 물론, 세상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웃 종교들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유지할 책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가톨릭교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톨릭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그리스도교 교단들과 이웃 종교들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무분별한 상대주의와 혼합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톨릭대학교 교목실장이 담당하고 ELP 과정에 포함된 ‘가톨릭 신앙과 삶’ 교과목이 이전에는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다종교 사회 속에서 가톨릭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 일치와 종교 간 대화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올바른 자세’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둔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Pope John Paul II, 1990: n.47). 주의할 점은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과 ‘종교 간 대화’가 추구하는 목표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종교 간 대화’는 다른 종교 전통 안에서도 현존하는 성령의 발자취를 찾아 오늘날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들에 있어서 종교계가 한목소리로 공통된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은 같은 신앙을 공유하면서도 여러 이유로 갈라진 형제들의 가시적인 일치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13: n.13-20). 그러므로 가톨릭대학교는 다양한 종교 문화를 가진 구성원들을 환영하는 자세를 갖추고, 그들에게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가톨릭 신자에게는 이웃 종교들 안에 현존하는 성령의 존재를 발견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비(非)가톨릭 구성원들에게는 모든 이를 구원 대상으로 포용하는 가톨릭 신앙으로 초대할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22: n.27-30).

3. 학교사목

1) 사목 모델: 사목적 배려를 통한 가톨릭 정신의 심화

가톨릭계 대학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시해야 할 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해 고무되는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Pope John Paul II, 1990: n.21). 이러한 이유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모든 대한민국의 가톨릭계 대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는 물론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가톨릭대학교는 현재 신부 1명, 수녀 2명, 직원 2명으로 구성된 교목실을 운영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교목실은 미사 전례를 중심으로 교목 공동체가 신앙의 삶을 체험하고 묵상하도록 안내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이 종교의 울타리 안에 한정되지 않고 인류 보편적인 가르침과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삶으로 증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CBCK, 2014: n.3.5).

교목실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먼저 학기 중 천주교 종교 예식인 ‘미사 전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12시 5분에,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거행되며, 평균적으로 평일 미사에는 20-30여 명, 주일 미사에는 40~5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성사 프로그램’으로는 세례를 위한 예비자 교리반을 매 학기 운영하고 있으며, 견진성사는 2년에 1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해 22명, 2022년에는 28명(교원 2명, 직원 9명, 학생 17명), 2023년에도 28명(1학기: 교원 1명, 직원 3명, 학생 6명, 2학기: 교원 1명, 직원 6명, 학생 11명)이 세례성사를 받았고, 견진성사는 2018년 24명, 2021년 15명, 그리고 2023년에는 38명의 구성원이 받았다. 세 번째로 교목실 소속 ‘신앙 단체’로는 ‘예수성심 교수회(17명)’, ‘다비오 교직원 전례단(18명)’을 비롯하여 ‘소피바라 가톨릭학생회(39명)’, ‘로고스 전례단(32명)’, ‘아마빌레 성가대(20명)’, 그리고 ‘가톨릭청년성서모임(29명)’ 등의 학생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 사목 성과: 가톨릭 교육이념 교육 및 가톨릭계 대학교 교목실 간의 지속적인 협력

가톨릭계 대학교에서 교원들은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이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낸 사랑의 증거자가 되어 복음화와 전인 교육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만 이 교원을 통해 양성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인간 존중이라는 가톨릭 교육 사명에 입각한 인성과 지식이 균형 잡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The Second Vatican Council, 1965: n.8). 이러한 차원에서 가톨릭대학교는 “모든 교수와 직원은 임용될 때 대학교의 가톨릭 정체성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정체성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증진시킬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교육하기 위하여 매년 2월, 8월에 임용된 신입 교직원들을 상대로 한 연수 프로그램 동안 가톨릭대학교의 정체성과 교육이념, 그리고 사명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가톨릭대학교가 지향

하고 있는 미래적 전망을 공유함으로써, 신입 교원과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가톨릭 정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성찰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교직원 워크숍을 통해 가톨릭대학교의 교육이념과 정체성에 대한 재교육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CBCK, 2014: n.6).

이에 덧붙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대한민국의 가톨릭계 대학교들이 가톨릭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속화·고도산업·다종교 사회가 초대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직면하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가톨릭계 대학교 간에 학문적 차원은 물론 사목적 차원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CBCK, 2014: n.8-9) 이러한 이유로 매년 1회 가톨릭계 대학교들이 돌아가면서 ‘전국 가톨릭계 대학 교목자 연수’를 주관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각 대학교의 가톨릭 교육이념 실현 방안은 물론 학교사목 성과 및 도전 과제, 그리고 상호 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3년 10월 20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주최로 “한국 가톨릭계 대학 효과성 연구(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Korean Catholic Universities)”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내 가톨릭계 대학교들이 가톨릭 교육 사명에 투철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에 관한 1년 반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첫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3) 비평적 평가: 비(非)가톨릭 및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개방된 학교 신앙 공동체 필요

가톨릭계 대학교를 포함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 선포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가톨릭 신앙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변호하고 강요하는 선교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속적 가치가 종교적 가치보다 우선시 고려되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복음 선포 수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다면, 학교 신앙 공동체가 미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례 참여를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신앙생활이 하느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에 근거한다면, 이 사랑을 체험한 신앙인들은 이웃들에게 구체적인 사랑 실천으로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되는 하느님 사랑의 현존이 인간 자신의 성화(聖化)는 물론 이웃들과 나눔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상적인 복음 선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Pope John Paul II, 1990: n.48-49).

앞서 언급한 대로 가톨릭대학교는 현재 신입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가톨릭 정체성, 교육이념 및 사명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교목실이 신입 교직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직원들의 신앙 성숙은 물론 가톨릭 정신을 교육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수성심교수회’와 ‘다비오전례단’이라는 단체가 교목실에 속해 있지만, 전

체 교직원 숫자와 비교할 때 활동 인원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교목실에서 제공하는 사목적 도움을 마치 종교에 대한 강요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교목실 입장에서 취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이와 더불어 교목 공동체가 복음 선포를 위해 자신이 체험한 하느님 사랑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코 학교사목이 폐쇄적 또는 배타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톨릭 신앙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하느님의 구원 대상에는 단지 천주교 신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구원 진리를 비(非)가톨릭 신자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기회를 교목실이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2024년에도 교목실의 모든 행사는 가톨릭 전례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종교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가톨릭대학교 구성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가톨릭 정신에 기초한 인성 교육 및 봉사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그리스도 신앙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사목적 배려가 필요해졌다. 그 예로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 교목 공동체 구성원들의 친교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가톨릭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미사를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인 학생들의 모국어와 함께 거행함으로써 가톨릭교회의 보편성을 체험할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IV. 결론

서론에서 언급한 교황청 교육문화부에서 주최했던 콘퍼런스의 제목 “다면체적 비전을 향하여”는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권고인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 이미 언급된 표현이다. 권고에 따르면 가톨릭교회의 사목 모델은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어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는 구형(球形)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지역 교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뿌리내리게 되는 이유는 저마다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안에서도 연령대에 따라서 그 문화를 적용하고 누리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Pope Francis, 2013: n.236). 이제 가톨릭교회의 교리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이를 따르라고 명령하는 시대는 저물었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 계층을 상대로 하는 학교사목은 ‘다면체’적이어야 한다고 11월 24일 폐막식을 대신한 알현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창조한 다양한 문화가 자신의 고유성은 간직하면서도, 이 다양성이 오히려 사도로부터 이어온 신앙의 유산을 풍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복음 선포가 서로 다른 멜로디로 전달되지만, 그 멜로디들의 조화가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Pope Francis, 2023: <https://zrr.kr/F5N5>).

현대사회에서 청년 계층의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무관심 문제와 관련하여 가톨릭교회는 ‘복

음과 문화 간 대화’, 더 나아가 ‘문화의 복음화’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가톨릭대학교는 구체적으로 기초 교양 필수 과정과 다양한 비교과 과정을 통해 인간이 창조한 문화에 “하느님의 계시와 초월성”에 개방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복음과 문화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들 안에 포함된 “인간 인격의 의미, 인간의 자유, 존엄성, 책임감, 그리고 초월적인 것으로 향한 개방성” 등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하느님 사랑의 복음이 그 문화 안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비록 복음은 모든 문화를 초월하지만, 문화화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드러내는 하느님 계시 내용을 인간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Pope John Paul II, 1990: n.43-45; Gallagher, 2003: 41-48). 특히 2023년 교황청 콘퍼런스에서 강조한 것처럼, 청년 계층이 창조하는 문화들은 확일성을 거부하지만, 다양성을 관통하는 진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톨릭대학교는 자신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개설한 기초 교양 교과목과 비교과 활동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이 진리에 대한 갈증을 표출하는 그들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식별하는 노력을 통해 ‘다면체적 관점’에서 원석과 같은 학생들의 문화를 갈고 닦는다면 마침내 진리 자체인 하느님의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톨릭 학교의 중대한 책임은 증언하는 것”(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22: n.28)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톨릭대학교는 학생들이 기초 교양 필수 과정 등을 통해 그리스도 신앙에 바탕을 둔 인간 존중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고, 봉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 및 사목적 배려를 통해 깨달은 인간 존중의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도록 학교 구성원들을 초대하는 것이, 오늘날 가톨릭대학교가 처한 ‘세속화’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선교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대학교의 교육이념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초 교양 과정은 물론 비교과 활동 및 학교사목을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교목처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고도산업’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가톨릭대학교가 교목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과학 기술과 신학 및 철학 간의 학문적 교류를 독려함으로써, 신학은 과학 기술의 도움으로 복잡한 물질적 세계에서 하느님 섭리의 경이로움을 새롭게 발견할 기회를 얻고, 신학은 과학 기술에 물질적 편리가 인간 존중의 원칙에 따라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방향 설정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22: n.29). 마지막으로 가톨릭대학교는 ‘다종교’ 상황에 직면하여 교목실을 중심으로 자신의 가톨릭적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비(非)가톨릭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의 긍정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알맞은 대화의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목실이 종교 간 대화를 진행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지침을 유념해야 한다. 먼저 가톨릭 신앙의 정체성을 우선적으로 확립함과 동시에 다른 이들의 문화적·종교적 정체성을 존중할 책임이며, 다음으로 문화적·종교적으로 다른 이들을 옹고 그릇의 기준이 아닌 다름의 기준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와 종교 간의 협력으로 좁게는 대한민국 넓게는 세계가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려는 진실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가톨릭대학교 신앙 공동체가 이웃 종교에 현존하는 성령의 열매를 발견하여, 이웃 종교들의 진리를 부정이나 배척이 아닌 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오히려 가톨릭 신앙 유산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17: n.11-15).

References

- Catholic College of CUK (n.d.). Caritas Volunteer Group.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vJQL>.
- Catholic College of CUK (n.d.). Ethical Leaders Rearing Program.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A6JX>.
- Catholic College of CUK (n.d.). International Volunteer.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3Ttc>.
- Catholic College of CUK (n.d.). Off-Campus Program.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MyAT>.
- Cha, A. (2023). A Report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Center in 2022.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41, 1-50.
-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Educating to Intercultural Dialogue in Catholic Schools: Living in Harmony for a Civilization of Love*(2013.10.2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2013). 가톨릭 학교의 문화 간 대화 교육: 사랑의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Cz2Y>.
-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Educating to Fraternal Humanism*(2017.4.16.).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옮김 (2017). 형제적 인류애 교육.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xLOR>.
-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The Identity of the Catholic School for a Culture of Dialogue*(2022.1.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2023). 대화의 문화를 위한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Wz1r>.
- Dicastery for Culture and Education (2023). Conference on Pastoral Care in Catholic Universities “Toward a Polyhedric Vision”.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G5V6>.
- Gallagher, M. P. (2003). *Clashing Symbols: An Introduction to Faith and Culture*. London: Darton, Longman and Todd Ltd.
- Hankook Research (2022.12.14.). [2022 Religious Awareness Survey] Status of Religious

- Population and Religious Activities.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9Yb1>.
- Park. I. Y. (2001). General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2, 73-100.
- Pope Francis. *Evangelii Gaudium*(2013.11.1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2017).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Fe27>.
- Pope Francis (2015). Discorso del Santo Padre Francesco ai Partecipanti al Congresso Mondiale Promosso dalla Congregazione per l'Educazione Cattolica (2015.11.21.).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0ZOR>.
- Pope Francis. *Predicare l'Evangelium*(2022.3.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2022).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VCZB>.
- Pope Francis (2023). Address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to Participants in the Meeting of University Chaplains and Pastoral Workers Promoted by the Dicastery for Culture and Education (2023.11.24.).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F5N5>.
- Pope John Paul II. *Ex Corde Ecclesiae*(1990.8.1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2022).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G4jk>.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n.d.). Philosophy & Vision.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LNx3>.
- The Second Vatican Council. *Declaration on Christian Education: Gravissimum Educationis* (1965.10.2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2023).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Retrieved 2024.1.15. from <https://www.cbck.or.kr/Documents/Council>.
-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9). 예수 그리스도와 가톨릭.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Institute of Anthropology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9). *Jesus Christ and Catholicism*. Seou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ess.
-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인간학연구소 (2017). 인간의 이해1-2.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Catholic College & Institute of Anthropology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7).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Seou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ess.
- 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 (2023). 인사말.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Mycb>. (Translated in English) Catholic Metaversity (2023). *Introduction*: Retrieved 2024.1.15. from <https://zrr.kr/Mycb>.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4). 가톨릭 대학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Ex Corde Ecclesiae)에 따른 한국의 가톨릭 대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규정.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14). *Regulations*

on Catholic Universities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According to the Apostolic Decree 'Ex Corde Ecclesiae' on Catholic Universities.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3). 한국 천주교회 총람: 2018-2022년.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3). *Korean Catholic Church's Survey: 2018-2022.*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2021).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 지침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Committee on Education i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3). *Korean Catholic School's Education Guidelines.*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